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가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고,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출범한 공기업이다.

한국주택공사는 전국의 3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등 국민들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건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특특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까지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의 혁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고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막중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 본사와 33개 지역본부, 사업본부 및 사업단과 7천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곳의 안전관리는 전국 안전인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 직원의 안전보건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시스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밑바탕으로 국토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봤다.

취재 김효선 기자 russet01@safety.or.kr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라고 하면 흔히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생기는 기계나 구조물의 붕괴에 의한 인적 사고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는 이 같은 공장이나 건설현장 이외의 근로자 개인의 스트레스, 피로, 건강상의 문제까지도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반 생산 사업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300여 개에 달하는 건설현장, 토목공사현장, 보상, 판매, 임대주택관리, 집단에너지사업 등 업무 분야가 다양한 상황에서 제각기 위험요소가 다르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공사는 이러한 거대 조직이 가진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서로 화합해 전폭적인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열고 40개 처와 예산담당자가 사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문제를 공감하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식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탑다운(Top-down)방식의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통해 전국 300여 개 현장의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역본부에는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를 선임해 이들로 하여금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을 진행토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각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재해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스트레칭과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안전보건시스템 도입으로 재해예방 총력

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안전보건시스템’ 시행 계획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각 현장별 안전교육의 실시시기와 방법은 물론 재해관리 기법, 근로자 건강검진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종합검진내역, 교육,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콘텐츠, 산재, 건강증진 등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안전과 보건의 상호 조화롭게 관리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2명만이 전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각 부서에 안전보건에 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사 발령이나 업무장소의 변경에도 안전보건증진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 시행하는 안전보건시스템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고민하고 경험해 오면서 축적한 안전보건관리 노하우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공사는 이번 안전보건

시스템이 근로자들의 산재감소 및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보건시스템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보건시스템과 더불어 공사는 사내에 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공사는 센터 내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함께 배치해 안전보건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실, 건강증진실,



상담실을 등을 구성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내 언제든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심리상담사와 운동트레이너를 보강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스톱 안전보건서비스 구축 '활발'

공사는 앞으로 더욱 조직적인 안전관리로 안전보건을 선도하는 공기업의 롤모델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제도 개선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임직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본사와 지역본부 등을 하나로 묶어 원스톱 안전보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2013년 이후에는 모든 직원이 어느 현장, 어느 부서에 배치돼도 항상 탄탄하고도 완벽한 안전 보호망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선진화된 시스템과 조직적인 안전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곳의 안전관리가 모범사례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전파되길 기대해본다.☺



mini interview



김덕중 안전관리자

안전,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아

“안전이란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된 학습과 훈련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습관화된 행동 패턴입니다.

우리 공사는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란 두 글자는 형식적이거나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귀찮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 일은 나는 물론 내 동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왜 하느냐는 물음표보다는 함께하는 느낌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